

#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 1. 펀드명: 마이다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 2. 효력발생(예정)일: 2024년 05월 24일
- 3. 정정사항

구분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등 주요 수치 업데이트	정기갱신	-	<p><b>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p> <p>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운용현황 및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동종유형 총 보수,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 비용)</p> <p><b>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b></p> <p>1. 재무정보</p> <p>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p> <p>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p><b>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b></p> <p>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p> <p>라. 운용자산 규모</p>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p>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p> <p>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보호되지</b>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보호되지</b> 아니합니다.</p> <p>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b>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b>)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요약정보	법 개정사항 반영	<p>〈요약정보〉</p> <p>[별첨1] 참조</p> <p>투자자 유의사항</p> <p>·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p>	<p>〈요약정보〉</p> <p>[별첨1] 참조</p> <p>투자자 유의사항</p> <p>·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보</b></p>

		<p>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요약정보	법 개정사항 반영	<p><b>주요투자위험</b> <b>투자신탁 해지의 위험</b>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b>주요투자위험</b> <b>투자신탁 해지의 위험</b>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제 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최근일 갱신	<신설>	<p>변경시행일: 2024-05-24</p> <p>변경사항: 정기갱신, 모자형 구조 변경사항, 기업공시서식 및 법 개정사항 반영</p>
제 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변경사항 반영	<p><b>다. 모자형 구조</b>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첨2] 참조</p>	<p><b>다. 모자형 구조</b>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첨2] 참조</p>
제 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 구조	최근일 갱신	<p><b>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b> 1)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② 세부 운용전략 [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별첨3] 참조</p>	<p><b>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b> 1)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② 세부 운용전략 [주요 투자대상 국가의 현황] [별첨3] 참조</p>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기업공시서식 및 법 개정사항 반영	<p><b>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b>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b>또</b></p>	<p><b>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b>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b>또</b></p>

		<p>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p><b>가. 일반위험</b>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b>나. 특수 위험</b> 중국본토주식 매매차익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중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하 생략)</p> <p><b>다. 기타 투자위험</b>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b>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b>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이 15.88%이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자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이해하며, 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p>	<p>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b>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b></p> <p><b>가. 일반위험</b>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보호되지</b> 않습니다.</p> <p><b>나. 특수 위험</b> 중국본토주식 매매차익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부를 중국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세당국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중국본토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b>결정하였으며,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b> (이하 현행과 같음)</p> <p><b>다. 기타 투자위험</b>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b>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b>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 32.59%이므로 아래 위험등급 기준에 따라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자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을 이해하며, 원본 손실이 발생할</p>
--	--	---	---

		<p>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p> <p>추후 매결산시마다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별첨4] 참조</p>	<p>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p> <p>추후 매결산시마다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별첨4] 참조</p>
제 2부 11. 매입, 환매, 기준가격 적용기준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p>나. 환매 &lt;신설&gt;</p>	<p>나. 환매</p> <p>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 중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투자신탁으로,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p> <p>[별첨5] 참조</p>
제 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p>나. 과세</p> <p>1) ~ 2) 생략</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p> <p>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하 생략)</p> <p>6)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종류 C-P1, C-Pe1 수익증권 가입자)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별첨6] 참조</p> <p>7)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2, C-Pe2 수익증권 가입자)</p> <p>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lt;상기 연금저축과 합산한 저축불입액 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만 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추가 세액공제됩니다.&gt;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② 과세이연 (생략)</p> <p>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p>	<p>나. 과세</p> <p>1) ~ 2) 현행과 동일</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p> <p>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p> <p>6)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종류 C-P1, C-Pe1 수익증권 가입자)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별첨6] 참조</p> <p>7)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2, C-Pe2 수익증권 가입자)</p> <p>① 세액공제</p> <p>-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p> <p>-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p> <p>-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p> <p>② 과세이연 (현행과 동일)</p> <p>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p>

		<p>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 (<a href="http://pension.fss.or.kr">http://pension.fss.or.kr</a>)의 “과세제도안내”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세제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삭제〉</p>
제 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일 갱신	<p>가. 회사개요 [주요주주현황] 현희현(10%), 이지혜(특수관계인 포함) (10%) 등</p>	<p>가. 회사개요 [주요주주현황] 현희현(10%), 이지혜(특수관계인 포함) (7.6%) 등</p>
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법 개정사항 반영	<p>나. 주요업무 2)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 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p>	<p>나. 주요업무 2)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 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집합투 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p>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p>나. 임의해지 (생략)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나. 임의해지 (현행과 동일)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 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제 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p>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생략)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 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p>	<p>나. 수시공시 2) 수시 공시 (현행과 동일)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 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 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 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 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 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 우</p>

[별첨1] 정정 전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3년 05월 14일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펀드코드: B1689]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b>실제 수익률 변동성</b> 을
1	2	3	4	5	6	감안하여 <b>2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주식형 모투자신탁(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자산의 100% 이하를 투자하여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관련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정정 후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4년 05월 14일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펀드코드: B1689]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b>실제 수익률 변동성</b> 을
1	2	3	4	5	6	감안하여 <b>2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주식형 모투자신탁(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자산의 100% 이하를 투자하여 가격변동위험, 파생상품 관련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정정 전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신탁재산의 100% 이하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신탁재산의 100% 이하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신탁재산의 100% 이하

[별첨2] 정정 후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H)(주식)		신탁재산의 100% 이하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신탁재산의 100% 이하
마이더스 아시아 리더스 성장주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신탁재산의 100% 이하
마이더스 기본 TDF 203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의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신탁재산의 100% 이하 투자
마이더스 기본 TDF 205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의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신탁재산의 100% 이하 투자

[별첨3] 정정 전

투자대상	내용설명(주1)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전환 과정 에너지 산업 성장, 정부 주도 주주가치 제고 정책으로 수혜</li> <li>■ 수출 중심 산업 구조로 과도한 하락, 반도체 업황 회복 시 기저효과 기대</li> <li>■ 주요 산업 :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 운수장비</li> </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1년 대외무역 규모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5천만명	\$ 48,860	3.2	2.9	2.0	644	615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2 신냉전 속 위안화 영향권 확대, 정부 주도 기술 산업 투자로 성장</li> <li>■ 리오프닝 이후 세계 최대 소비 및 내수시장 수혜 기대</li> <li>■ 주요 산업 : TMT, 운수장비, 서비스, 소비재, 금융</li> </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1년 대외무역 규모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14.0억명	\$ 19,411	6.9	6.8	6.1	3,368	2,678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A/B 증시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으나 정부 정책 리스크에 취약</li> <li>■ 중국 리오프닝 이후 IT 및 관광 산업 수혜 기대</li> <li>■ 주요 산업 : TMT, 운수장비, 서비스, 소비재, 금융</li> </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1년 대외무역 규모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7백만명	\$ 66,356	3.8	2.9	-1.3	672	714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도로 G2 신냉전 속 수혜 전망</li> <li>■ 정부 주도의 반도체 기업 설립, 소부장 기술력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합류</li> <li>■ 주요 산업 : 산업재, 소비재, 서비스, IT, 반도체</li> </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1년 대외무역 규모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1.2억명	\$ 45,224	2.2	0.3	0.7	831	846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인도 및 동남아시아 성장 공유</li> <li>■ 동남아시아 지정학적 허브, G2 신냉전 간 균형 외교</li> <li>■ 주요 산업 : 금융, 정보통신, 산업재</li> </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1년 대외무역 규모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5백만명	\$ 118,887	4.3	3.5	0.7	457	406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기대하나 상품가격 하락 취약</li> <li>■ 주요 산업 : 소비재, 에너지, 금융</li> </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1년 대외무역 규모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3천만명	\$ 29,944	5.8	4.8	4.3	299	239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기대하나 상품가격 하락 취약</li> <li>■ 인구구조, 천연자원 보유 측면에서 매력적</li> <li>■ 주요 산업 : 금융, 소비재</li> </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1년 대외무역 규모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2.8억명	\$ 13,159	5.1	5.2	5.0	232	187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총선 이후 왕실과 군부, 개혁정당 간 갈등으로 정책 방향성 혼조</li> <li>■ 내수시장 규모 및 개발 단계 감안 시 성장 잠재력 높은 시장</li> <li>■ 주요 산업 :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소비재</li> </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1년 대외무역 규모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7천만명	\$ 19,294	4.3	4.3	2.6	266	267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li> <li>■ 모디노믹스 기반 친기업 정책과 인구구조, 정치체제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li> <li>■ 주요 산업 : 소비재, 서비스, 에너지, 금융, IT</li> </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1년 대외무역 규모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14.1억명	\$ 7,355	6.6	6.8	4.9	395	576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IT강국으로 G2 신냉전 속 서방 국가 중심 경제 및 기술 협력 확대</li> <li>■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li> <li>■ 주요 산업 : 전기전자 (IT), 금융, 소재, 통신</li> </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1년 대외무역 규모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2천만명	\$ 62,965	3.3	2.8	2.7	448	382

주1) 상기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 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 국가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국가 외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국가에 대한 설명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경제지표는 IMF, 통계청 및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인구 및 1인당 GDP(PPP)는 2021년 기준.

### [별첨 3] 정정 후

투자대상	내용설명 <sup>주1)</sup>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IT강국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 및 AI 관련 투자 수혜 기대</li> <li>■ 정부 주도 주주가치 제고 정책</li> <li>■ 주요 산업: 전기전자, 서비스, 금융, 운수장비</li> </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2년 대외무역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5천만명	\$ 32,395	-0.7	4.3	2.6	684	731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국9조(중국 밸류업 프로그램), 소비재 이구환신,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정책 완화에 주목</li><li>■ 실물 지표는 24년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부담이 낮은 밸류에이션</li><li>■ 주요 산업: TMT, 운수장비, 서비스, 소비재, 금융</li></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2년 대외무역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14.0억명	\$ 12,643	2.2	8.4	3.0	3,604	2,715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홍콩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5가지 조치가 발표되며 정책 기대감 강화</li><li>■ 중국 빅테크 실적 호전은 홍콩 증시 펀더멘털과センチ먼트 개선 기대</li><li>■ 주요 산업: TMT, 운수장비, 서비스, 소비재, 금융</li></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2년 대외무역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7백만명	\$ 48,002	-6.5	6.4	-3.5	611	669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부 주도의 반도체 기업 설립, 기술력 기반의 소부장 등을 포함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합류</li><li>■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들의 자본효율화에 대한 기대와 개인투자자의 투자 증대</li><li>■ 주요 산업: 산업재, 소비재, 서비스, IT, 반도체</li></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2년 대외무역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십억 ¥)	수입(십억 ¥)
	약 1.2억명	\$ 34,005	-4.1	2.6	1.0	98,186	118,164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리적 이점, 아세안 허브로서의 위치</li><li>■ 고배당 리츠 상장 매력</li><li>■ 주요 산업: 금융, 정보통신, 산업재</li></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2년 대외무역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5백만명	\$ 88,429	-3.9	8.9	3.6	515	551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슬람 경제 1위 국가, 글로벌 공급 체인 변화 속 저전력비 기반 투자 활발</li><li>■ 주요 산업: 에너지, 금융, 소재</li></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2년 대외무역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3천만명	\$ 12,466	-5.5	3.3	8.7	352	294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동남아시아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li><li>■ 인구구조, 천연자원 보유 측면에서 매력적</li><li>■ 주요 산업: 금융, 소재, 소비재</li></ul>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2년 대외무역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2.8억명	\$ 4,799	-2.1	3.7	5.3	292	237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구조</li><li>■ 정치 리스크 제거를 통한 민주적 성장 가능성 모색</li></ul>						

	■ 주요 산업: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소비재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2년 대외무역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7천만명	\$ 7,073	-6.1	1.5	2.6	284	306
인도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 ■ 모디노믹스 기반 친기업 정책과 인구구조, 정치체제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 주요 산업: 소비재, 서비스, 에너지, 금융, IT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2년 대외무역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14.1억명	\$ 2,366	-5.8	9.1	7.2	453	733
대만	■ 글로벌 IT강국으로 G2 신냉전 속 서방 국가 중심 경제 및 기술 협력 확대 ■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 ■ 주요 산업: 전기전자 (IT), 금융, 소재, 통신						
	인구	1인당 GDP(PPP)	GDP 성장률(%)			2022년 대외무역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십억 US\$)	수입(십억 US\$)
	약 2천만명	\$ 32,610	3.4	6.5	2.6	478	436

주1) 상기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투자신탁(모투자신탁)에서 투자 가능한 주요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 국가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 목적 및 투자전략에 따라 상기 국가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 국가 외 국가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국가에 대한 설명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자료 출처 및 기준

- 인구, 1인당 GDP: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2022년 기준
- GDP성장률: 세계은행(<https://www.worldbank.org/en/home>), 대만 자료는 Trading Economics(<https://ko.tradingeconomics.com/>), 2022년 기준
- 대외무역 규모: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2022년 기준

[별첨4] 정정 전

〈위험등급 기준표〉

등급	1(매우높은위험)	2(높은위험)	3(다소높은위험)	4(보통위험)	5(낮은위험)	6(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 최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실제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

[별첨4] 정정 후

〈위험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매우높은위험)	2(높은위험)	3(다소높은위험)	4(보통위험)	5(낮은위험)	6(매우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 )를 곱해 산출

[별첨5]

환매 불가	환매 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환매수수료 미발생
X	X	O

[별첨6] 정정 전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소득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별첨6] 정정 후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제외)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연금소득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